

2026 July

FX Market Monthly Letter

연구위원 서정훈
seojh@hanafn.com

연구위원 이유정
yjlee.r@hanafn.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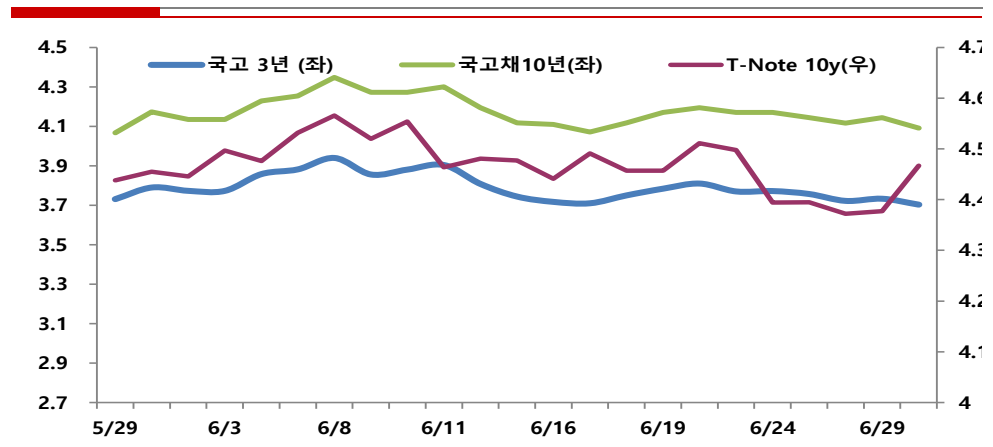
6월 동향

중동 협상 지지부진한 점이 불확실성 키우며 국고채 금리변동성에 주요하게 영향 미침. 하지만 월 후반,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 자본시장 안전자산 선호 요인 등이 국고채 시장 전이된 가운데 긍정적 수급 요인 반영에 하락 전환 마감

- 월 초, 국내 5월 소비자물가 상승 추세 속 한은 총재 매파적 메시지 등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이어 중동 이슈 종전 기대 약화 속 미 경제지표 호조 등의 영향 반영되 국고채 금리 상방 압력 확대되었지만, 정책 당국 개입 추정과 외국인 투자자 대규모 국채선물 순매수 등의 수급 요인 반영하며 급락 양상 시현
 - 월 초, 국내 5월 소비자물가 지표의 상승 추세 속에 한은 총재의 매파적 메시지 언급 등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 이어 중동 전쟁의 종전 기대가 다소 약화하는 가운데 미국 경제지표의 호조 등에 국고채 금리 향방 동조 흐름 나타났지만, 정책 당국의 시장 경계감 강화 속 이어진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확대의 수급 영향 등으로 국고채 금리 급락 양상 시현
- 중반, 중동 분위기가 냉온탕을 오간 가운데 종전 합의 가능성 증대 등으로 급락 추세 이어진 영국. 이어 유가 하락 영향 등이 반영되었지만, 위시의 첫 FOMC가 상당한 매파 결과를 보인 여파 속 국내 외환시장 불안정성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 국면 시현
 - 중반, 중동전쟁 지속 우려에 유가 상승 흐름이 나타난 측면과 이어진 미-이란 종전 합의 가능성 관측으로 중동 분위기가 냉온탕을 오가는 분위기 속 합의 가능성 증대 및 국고채 수급의 긍정적 영향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이어진 영국
 - 이어, 일본과 호주 중앙은행 금리결정 영향 제한되었지만 한은 총재 물가 첫 설명회의 매파적 언급 및 위시 의장의 첫 FOMC의 매파 성향 등이 국고채 금리 상승 전환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외환시장 불안정성의 영향도 국고채 시장 변동성 확대에 영향 미친 영국
- 후반, 중동 협상 불확실성, 이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금리 상승 압력 지속 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이 국고채 시장으로 전이되며 금리 하락 폭 확대한 가운데, 월 후반, 국고채 시장 수급 요인 반영 속 세계국채지수 편입 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 지속하며 마감
 - 후반, 중동 협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유가 상승 추세 등이 국고채 금리 상승에 재차 영향을 미쳤지만, 이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가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는 하락 전환 양상 시현
 - 이어, 국고채 시장 입찰 등 수급적 요인이 긍정적 결과를 보인 가운데, WGBI 수요 유입 등이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추세 지속에 영향 미치며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6월 평균
국고채(3년): 3.79%
T-Note(10년): 4.47%



7 월 전망

연준 매파 성향 강화에도 최근 중동 이슈 완화에 따른 유가 하락을 고려하면 글로벌 금리 하방 압력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다만, 한은 환율 중시 매파 성향에 따른 선제적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은 국고채 금리 하단 제한할 전망

평균	1Q26	2Q26	3Q26	4Q26
국고채(3Y, %)	3.19	3.7 ^(f)	3.65 ^(f)	3.5 ^(f)

- 미 고용시장 견조한 결과에 따라 7월 FOMC는 확연한 물가 상승에 대응한 매파 기조가 우위 나타낼 전망. 다만, 이러한 매파적 기조 근간에는 고용이 장기화가 기저에 있었지만, 최근 MOU 체결 이후 유가 하락세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소 매파적이나 동결 기조 유지할 것으로 보임. 이런 영향의 선제적 글로벌 금리 영향은 상방 압력에 다소 제한적일 전망
 - 6월 미 고용시장의 견조한 결과에 7월 FOMC는 확연히 물가에 대응한 매파적 기조가 우위를 보일 전망
 - 다만, 상기 매파 기조에 근간이 고용이 장기화였는데, 미-이란 MOU 체결 이후, 유가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 대응 매파이나 동결 기조 유지할 전망. 이 영향은 국내외 금리에 매파 영향 반영을 다소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중동리스크는 MOU 체결 이후 변동성에 대한 시장 민감도 완화 속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반면, 달러 강세 등의 통화적 요인에 의한 자국통화 방어 가능성의 주요국 미 국채 매도 확률 상존 등은 글로벌 금리 하방 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중동 전쟁이 MOU 체결 이후 변동성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완화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 등에 따른 영향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 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글로벌 금리 상단을 제한할 요인으로 보임
 - 하지만,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 속 상대적 자국 통화 약세가 심화되는 주요국 중심의 자국통화 방어를 위한 미 국채 매도 확률 증대 위험 등은 글로벌 금리 하방 압력을 제한하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중동 이슈 완화에 따른 유가 하락 추세에 그간 높은 수준 상승했던 소비자물가가 다소 완화될 여지 상존. 하지만, 중시 규모 확대의 소비 전가 영향과 급등한 원화 환율이 한은 통화정책 주요 핵심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 고려가 7월 선제적 한은 금리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고채 금리 소폭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최근 중동 종전 협상으로 전쟁 국면 완화에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한 영향 속 국내 소비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 완화할 여지 상존한 측면 등은 매파적 통화정책의 일부 완화 요인으로 판단
 - 하지만, 최근래 급등한 중시 규모 확대의 소비 전가와 빠른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측면이 여전히 물가 불확실성 요인으로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한은은 연준에 선제적 금리인상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고채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7월 전망
3.65%~3.85%

상승요인	하락요인
- 연준 위원들 다수의 인플레이션 대응 매파 성향 - 외환시장 불안정성 고려한 한은의 금리인상 가능성	- 매파 성향에도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등을 고려한 동결 통화정책 우위의 연준 방향성 - 미-이란 MOU 체결 이후, 유가 하락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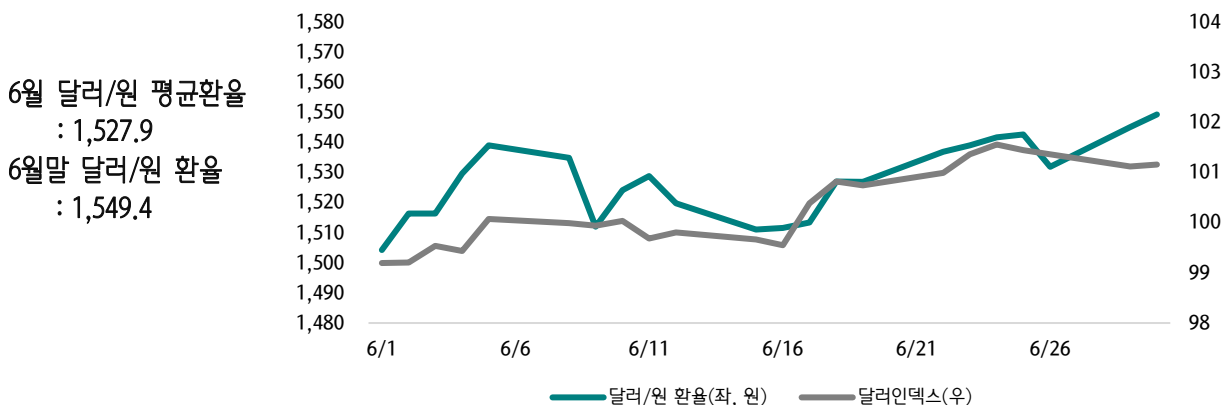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6 월
동향

중동 긴장 완화에 따른 유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연준 긴축 우려, 국내 증시 대규모 외인 매도세와 달러 매수 쏠림 등이 겹치며 환율은 1,500원 중반대로 급등. 다만, 외환당국 경계심리 고조되며 1,550원선에서 상단 제한

- 월초, 중동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 이탈, 연준 긴축 전망에 따른 강달러 영향이 맞물리며 1,500원 중반대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당국의 강력한 시장 안정 의지에 힘입어 급락세로 돌아서며 1,510원대로 하락
 -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갈등이 부각됨. 이에 국내 증시에서의 대규모 외국인 매도세와 그에 따른 달러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환율은 점차 상단을 높여가며 1,500원 중반대까지 상승
 -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자수가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며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이 힘을 얻음. 이로 인한 글로벌 강달러 영향 속 환율은 1,550원대까지 급등했으나, 이후 외환당국 구두개입과 국민연금의 선물환 매도 등 시장 안정 조치가 이어지며 1,510원대로 급락
- 월 중반, 외환당국 경계감 속에 미-이란 종전 MOU 합의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위험선호 심리도 되살아나자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매파적인 6월 FOMC 결과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과 강달러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
 - 중반, 당국 스무딩 오퍼레이션 추정 물량 유입과 국민연금 환헤지 등 안정화 조치에 힘입어 환율도 안정을 찾는 듯했으나, 국내 증시 외인 자금 이탈로 1,530원선까지 반등. 이후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 합의 소식과 함께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자 하락 전환
 -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로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시장에 위험선호 심리가 유입, 이에 환율도 1,510원대에서 등락. 그러나 이후 개최된 6월 FOMC가 예상보다 매파적인 성향을 띠면서 연준 긴축 우려가 확산되자 미 국채금리 상승 및 강달러 영향이 맞물리며 큰 폭 반등
- 후반, 연준 통화정책 긴축 우려로 인한 글로벌 강달러 기조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증시 순매도와 달러 매수세 등 수급 쏠림 부담이 겹치며 재차 1,500원 중반대로 올라섰으나, 정책당국 경계심리 반영된 가운데 1,550원선 아래에서 마감
 - 후반, 연준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지며 글로벌 강달러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 기조와 그에 따른 달러 환전 수요 증가로 인해 원화 약세 흐름 이어짐. 이에 환율은 오름세를 이어가며 1,540원대를 돌파
 - 이후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추정 물량 유입 등 당국 경계감이 고조되며 상승 흐름 주춤해졌으나, 글로벌 강달러 기조와 지속되는 외인 증시 매도세, 엔화 약세와의 동조화 영향 등이 겹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가중, 이에 1,550원대 터치 후 1,549.4원으로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7 월 전망

연준의 매파적 성향과 중동 불확실성, 엔화 약세 지속 등 원화에 불리한 대외 여건 하에 환율 상승 압력이 이어질 전망. 다만, 한-미 금리차 축소와 수급 쏠림 완화 기대 등이 이를 일부 상쇄해 줄 것으로 예상

평균	1Q26	2Q26	3Q26	4Q26
달러/원 환율(원)	1,467	1,501	1,490 ^(F)	1,460 ^(F)

-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매파적 기조 지속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이 원화에 비우호적인 대외 여건으로 작용, 당분간 환율 상승 압력을 지속시키는 주된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
 - 지난 6월 FOMC를 통해 연준의 물가 안정 중시 기조가 확인되면서 긴축 경계감이 확산되는 양상임. 다만,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일부 재개로 국제유가가 60달러대 수준으로 안정됨에 따라, 연준은 급격한 긴축 선회 보다는 동결 기조 유지하며 물가 지표 추이를 관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다만, 그간 누적된 고유가 여파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기대 인플레이션 통제 필요성을 고려하면 연준의 매파 기조가 쉽게 완화되기는 어려워 보임. 또한 워시 의장의 소극적인 소통 방식 역시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키우며, 또 다른 측면에서 달러 강세를 부추길 소지가 있음
- 미-이란 간 불안정한 외교 협상 국면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의 매파적 행보에도 지속되는 강달러와 엔화 약세 동조화 영향 등 글로벌 주요 통화의 움직임 또한 원화 약세 부담 가중시킬 요인임
 - 미국과 이란이 외교적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타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됨. 전면적인 무력 충돌 위험은 낮아졌더라도 양국 간 긴장 재발 우려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상존해 있어 원화 환율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한편, ECB와 BOJ가 중동발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 금리인상에 나섰으나, 강달러를 꺾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특히 엔화 가치 하락이 원화 약세를 자극하는 동조화 효과를 유발, 향후 원화에 추가적인 약세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순매도세로 인해 환율 상방 압력이 지속될 수 있겠지만, 한-미 금리 역전 부담 완화와 대형 반도체사의 미 증시 상장 관련 달러 유입 기대 등은 외환시장 수급 쏠림 및 환율 상승 기대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
 - 외국인의 차익 실현 및 리밸런싱성 순매도 이어지며 달러 매수세를 자극, 원화 약세 견인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 중. 향후 추가 매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만, 반기말 리밸런싱 종료 후 매도 규모가 다소 축소될 경우 환율 상방 압력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
 - 한편, 7월 금통위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진 가운데, 한은의 선제적 대응으로 한-미 금리 역전폭 부담이 완화될 점은 원화에 긍정적 요인임. 이에 더해 주요 반도체 기업의 미 증시 상장에 따른 달러 자금 유입 기대감 역시 수급 쏠림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7월 달러/원 환율
1,525~1,565원 예상

상승요인	하락요인
- 연준 매파 성향 부각에 따른 글로벌 강달러 - 엔화 약세 등 달러 대비 주요 통화 약세	- 한은 금리인상 가능성과 한-미 금리차 축소 전망 - 외환수급 쏠림 완화 기대

자료: 하나은행

이중통화

엔화 전망

중동 협상 진전에도 그간 유가 상승의 지연된 물가 전이 등으로 BOJ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열려있는 상황. 하지만, 성장 모멘텀 약화와 대외 연준 매패 성향 우위 등에 따른 영향 확대 속 개입의 제한적 효과 등으로 소폭 상승 흐름 예상

6월 달러/엔 평균환율
: 160.8
6월 엔/원 평균환율
: 949.7

■ **(엔화 동향)**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에 머무르며 일본 무역수지 악화 우려가 지속 되는 가운데, 미 고용지표 호조로 미 국내금리가 상승하자 엔화는 160엔선을 돌파. 중반, 미-이란 중전 MOU 합의에 따른 유가 하락과 BOJ 금리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매패적인 FOMC로 인한 미 국내금리 상승 및 강달러에 약세 폭이 확대됨. 후반, 일본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 등 시장 개입 경계감 높아졌으나, 미-일 금리차 축소 기대 후퇴와 실수요 달러 매수세 유입에 결국 162엔 돌파

7월 엔/원 예상범위
: 945-955원

■ **(엔화 전망)** 중동 전쟁 MOU 협상 단계 전환 속 유가 하락 전환에도 그간 누적된 물가 상방 압력으로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의 점진적 상승세가 이어지는 형국. 여기에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성장 모멘텀 약세가 지속. 이에 따른 BOJ의 물가 대응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도 연준의 매패 성향 우위와 외환시장 개입 효과의 예상 외 제한적 영향 등이 엔화 약세 흐름에 영향 미칠 전망
· 중동 이슈 완화에 따른 유가 하락에도 일본 주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상승세 이어지는 형국. 여기에 무역수지 적자 기조로 성장 모멘텀 또한 약화가 지속. 이에 BOJ는 물가 우선 대응 금리인상 가능성 추가 고려할 듯
· 하지만, 연준 매패에 따른 달러 강세 반영과 경기 고려에 대한 BOJ 추가 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 고려 시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 상존 속 구두개입의 제한적 효과 등으로 엔화 추가적 약세 기조는 다소 이어질 전망

유로화 전망

유럽 전쟁 재격화 등이 유로 경기 불확실성 증폭시킬 전망이나 물가 상승세에 따른 ECB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유로 강세 지지할 전망. 하지만, 미 성장 우위 영향과 연준 매패적 기조에 의한 달러강세 심화에 소폭 약세 흐름 예상

6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507
6월 유로/원 평균환율
: 1,757.5

■ **(유로화 동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긴장 완화 기대감이 후퇴한 데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 호조로 연준의 긴축 전망이 강화되면서 유로화는 1.15달러대로 하락 출발. 중반, ECB 금리인상 결정, 중동 긴장 완화 및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반등했으나, 매패적인 6월 FOMC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로 전환. 후반, ECB 위원들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기지표 둔화와 연준 긴축 우려에 따른 글로벌 강달러에 약세 이어가며 1.13달러대 마감

7월 유로/원 예상범위
: 1,760~1,780원

■ **(유로 전망)** 중부유럽 전쟁의 재격화에 따른 영향으로 유로존 경기 불확실성이 증폭하는 가운데 독일 등 주요국 물가 상승세 지속 속 ECB 금리인상 가능성 상존 등이 유로 강세 지지 요인으로 판단. 하지만, 미국의 성장 우위 기조와 고용지표 호조 등에 따른 매패적 연준 기조 등으로 달러 강세가 심화되는 영향 등이 단기 유로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중부유럽 전쟁 재격화 속 중동이슈 협상 부진 등에 따른 2개 전쟁 여파에 유로존 경기 불확실성은 보다 커지는 상황. 물론 독일 등 주요국 물가 상승 추세를 고려 시 ECB의 금리인상 확률은 유로 강세를 지지하는 형국
· 하지만, 성장의 상대적 우위에 있는 미국 경제여건 속 고용지표 호조 등으로 연준의 매패 성향 강화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이 단기적으로 유로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형국을 고려하면 다소 약세가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6년 7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미 고용보고서	3	4
			[휴장] 홍콩(반환기념일) 코스닥 30주년 행사(~3) : 코스닥 승강제(세그먼트), 상장폐지 요건 강화,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라인, 릴레이 IR 행사 예정 [기업] 매드업 코스닥 상장 한 6월 수출/입(YoY +53.2%, +20.8%), 무역수지 S&P 글로벌 제조업 PMI(54.8) 미 5월 건설 지출(MoM +0.4%) 6월 ADP취업자 변동(122k) S&P 글로벌 제조업 PMI(F)(55.1) ISM 고용, 신규주문, 제조업, 구매물가	[기업] 에이지엘지노믹스 수요예측(~8) 2026 원전 코리아(~4) 2026 항공우주전자 심포지엄(~3) 한 6월 CPI(MoM +0.5%, YoY +3.1%) CPI 근원(YoY +2.5%) 미 5월 제조업수주, 내구재 주문[F] 6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172k) 6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120k) 시간당 평균 임금, 실업률(4.3%) 유 5월 실업률(6.3%)	[휴장] 미국(독립기념일) 2026 서울 메타버스 워크(~4) 중 6월 레이팅독 종합 PMI(54.0)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54.4) 유 6월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F] 일 6월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 PMI[F]	
5	6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7 삼성전자 잠정실적, NATO정상회의	8 지준일	9 한국 유선만기일	10	11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개시 : 월요일 오전 6시~토요일 오전 6시 무중단 거래 [기업] 레몬헬스케어 코스닥 상장 2026 국제 머신러닝 학회(ICML)(~11) 미 6월 ISM 서비스(54.5), 가격(71.3) 고용(47.9), 신규주문(57.3)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F] 유 5월 소매판매(MoM -0.4%, YoY +1.0%) PPI(MoM +0.6%, YoY +4.9%) 7월 섀텍스 투자자지대지수(~13.4)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 공개 : 2분기 매출액 179조원, 영업이익 92조원 전망. 삼성전자 잠정실적 시작으로 어닝 시즌 본격화 NATO 정상회의(~8) : 미국의 파병 요구.영위비 압박 속 이번 회의에 걸프 4개국 초청으로 남부전선 강화 움직임 주목 미 무역대표부(USTR) 대체 관세 부과 공회 : 관세 만료 앞두고 대체 관세(무역법 301조) 검토 AI for Good Global Summit 2026(~10) 미 5월 수출/입(MoM +2.6%, +2.0%), 무역수지	지준일(지급준비일) 6월 FOMC 의사록 공개 2026 중국 상하이 모터쇼(AMTS)(~10) 나노 코리아 2026(~10) [재권]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5월 경상수지, 상품수지 일 6월 경기관찰조사 연형(43.6)	한국 유선만기일 바이오차이나 2026(~10) [재권]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IT] 6월 대한 수출 데이터 발표 미 6월 기준주택매매(MoM +3.2%) 중 6월 CPI(YoY +1.2%), CPI 근원(YoY +1.1%) PPI (YoY +3.9%) 일 6월 통화량 M2(YoY +2.5%)	[기업] 인제니아테라퓨틱스 수요예측(~16) 델타 항공 실적 발표 : 글로벌 소비심리 바로미터, 델타 항공을 시작으로 3주차 금용, 4~5차 빅테크 실적 발표 이어짐 [음식료] USDA 세계 곡물 수급 전망 일 6월 PPI(MoM +0.9%, YoY +6.3%)	
12	13	14 연준 반기 의회 보고, 미 CPI	15 Beige Book, 미 PPI	16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17 한국 휴장	18
	[기업] 레메디 코스닥 상장 OPEC 일간 원유시장 보고서 미국 글로벌 SMC 2026(~15) : 올해 주제는 '새 시대의 초재 혁신'. 인텔, 삼성전자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 발표 관심 미국 라스베가스 코스코모프(~15) 한 7월 1~10월 수출/입 (YoY +85.9%, +35.6%) 미 6월 연방재정수지	연준 반기 의회 보고(~15) : 케빈 워치 의장의 첫 반기 의회 보고, 연준의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 미 6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95.3) CPI(MoM +0.5%, YoY +4.2%) CPI 근원(MoM +0.2%, YoY +2.9%) 중 6월 무역수지 수출/입(YoY +19.4%, +27.4%) 일 5월 광공업생산(F), 설비가동률	연준 베이지북 공개 한 5월 통화자금 M2(MoM +0.6%) 6월 수입물가(MoM -0.3%, YoY +24.8%) 수출물가(MoM +0.3%, YoY +46.9%) 실업률(2.8%) 미 6월 PPI(MoM +1.1%, YoY +6.5%) PPI 근원(MoM +0.4%, YoY +4.9%) 7월 뉴욕 엘파이어스타이트 제조업지수(5.7)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2.50%로 동결. 이번 회의에서 한은 금리 인상 단행할 가능성 높음 [기업] 게이멘즈사이언스 수요예측(~22) 미 6월 소매판매(MoM +0.9%) 근원 소매판매(MoM +0.8%) 미결주택매매(MoM +3.8%) 7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10.1)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10.3) NAHB 주택시장지수(35)	[휴장] 한국(제헌절) 미 6월 수입물가(MoM +1.9%, YoY +6.7%) 수출물가(MoM +1.3%, YoY +11.2%) 주력작곡가수, 건축여가[P] 광공업생산, 설비가동률 7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형[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캔자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유 6월 CPI(F)(YoY +3.2%) CPI 근원(F)(YoY +2.6%)	
19	20	21	22 ECB 통화정책회의(~23)	2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24	25
	[휴장] 일본(바다의 날) 2026 영국 판버러 에어쇼(~24) 유 5월 건설 생산(MoM +0.6%) 독일 PPI MoM, YoY 미 CB 경기선행지수 MoM	한 7월 1~20일 수출/입(YoY +60.4%, +23.2%) 미 7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미 ADP 고용 증감 유 7월 ZEW 경기전망지수(9.5) 영국 실업률, 고용증감 독일 ZEW 경제심리지수	ECB 통화정책회의(~23) : 지난 회의에서 예금금리 2.25%로 인상. 이번 회의는 동결 가능성 높으나 매파적인 기초 유지할 전망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 : 갤럭시Z8 시리즈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 등 공개 한 6월 PPI(YoY +8.5%) 일 6월 수출/입(YoY +17.0%, +12.5%)	[자동차] 유럽 6월 판매 데이터 아세안(ASEAN) 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한 2Q GDP[A](QoQ +1.8%, YoY +3.8%) 미 7월 캔자시티 제조업활동 유 7월 소비자지대지수[P]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법적 만료 시간 : 기존 10% 임시 관세 법적 만료. 이후 무역법 301 조근거로 새로운 관세 도입 가능성 미 6월 신규주택매매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P]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P] 캔자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유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P]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업 PMI[P] 7월 S&P 글로벌 종합, 서비스 PMI[P] S&P 글로벌 제조업 PMI[P]	
26	27	28 미국 FOMC(~29)	29	30 BOE, BOJ 통화정책회의	31	
	미국 반도체 설계 자동화 컨퍼런스(DAC)(~29) 미 7월 델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미 내구재 주문 MoM 미 델러스 연운 제조업지수 중 6월 산업생산 일 6월 PPI 서비스 독일 IFO 기업 환경지수	미국 FOMC(~29) :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3.50~3.75%로 동결. 26년 점도표 상향으로 연내 인상 가능성 시사 한 7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5월 FHFA 주택가격지수 S&P 코어테크 CS 20개 도시 6월 도매재고, 소매재고 7월 델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리치몬드 연준 경기연형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지대지수	한 6월 소매판매 미 API 원유 재고 변동 후주 CPI 상승률 YoY, MoM	BOE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3.75%로 4연속 동결 BOJ 금융정책위원회(~31)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1.0%로 인상 미 6월 PCE, PCE 근원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2Q GDP, GDP 물가지수, 개인소비[A] 유 6월 실업률 7월 소비자지대지수[F] 2Q GDP[A](QoQ -0.2%, YoY +0.3%)	미국 아연 여름 휴회(~8/30) [IT] 6월 DRAM 계약가격 발표 NAND FLASH 계약가격 발표 한 6월 광공업생산 미 7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형[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MNI 시카고 PMI 중 7월 제조업, 비제조업, 종합 PMI 유 7월 CPI[P], CPI 근원[P] 일 6월 실업률, 광공업생산[P], 소매판매 7월 도쿄 CPI, 도쿄 근원 CPI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